

강진도서관, 행복한 왕자 好評

‘생생 낭독극장’ 열려, 가족 100여 명 관람 아이들의 독서 욕구 불러 일으키며 성료



강진군도서관이 지난 16일 ‘2019 제2회 생생 낭독극장’을 개최했다.

오스카 와일드 원작소설 ‘행복한 왕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생생 낭독극장에는 어린이와 가족 등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했다.

세계 명작 동화 중 하나인 ‘행복한 왕자’는 자신의 꿈을 돌보지 않

고 남을 돕는 왕자와 그 옆에서 우체부 역할을 해주는 제비의 이야기이다.

이날 낭독극장에는 예술단체인 ‘이야기꾼 책공연’ 팀이 참여해 ‘행복한 왕자’를 연극으로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재미난 동작과 흥미를 유발하는 대화로 즐거움과 감동을 줬 관람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 후 소감을 적은 소원 책 나무에는 “제비랑 왕자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왕자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와 함께 즐거웠어요.”, “낭독극장 또 관람하고 싶어요.”, “슬퍼요.”, “어릴 때 봤던 책이어서 좋았어요” 등 다양한 반응들이 걸렸다.

두 자녀와 함께 관람한 강진읍 김수경씨는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이디를 갈까 항상 고민이었는데 도서관에서 동화 연극을 해주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지주 낭독극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환 도서관장은 “낭독극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독서 욕구를 높이고 문화수준 향상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지원

무안군은 동절기 한파 및 농한기, 공사휴지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민생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겨울철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집중 발굴해, 공적지원 서비스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를 지원한다.

또, 공적지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겨울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위해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대한노인회신안지회 게이트볼 대회 성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신안군지회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압해읍 신안공설운동장에서 제16회 신안군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제8회 여성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대회는 34개팀 21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대회에 앞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하신 어르신들의 웃음꽃 넘치는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도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 행복하고, 특히 열여섯

해를 맞이하는 게이트볼대회 역사상 처음 출전한 흑산면 어르신들이 빛을 뽐내며 더욱 반갑고, 이번 대회가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결과 남성부는 증도면 노인회분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팔금면 노인회분회, 공동 3위는 입자면과 압해면 노인회분회가 차지했다.

진도군, 서경덕 교수 초청...청년 아카데미 개최



진도군이 오는 21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 교수(성신여자대학교)를 초청, 청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청년 아카데미는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라는 주제로 세계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글로벌 에티켓, 창의적 사고, 적극적 실행력을 중점적으로 강연하고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진도군 청년아카데미 참석 대상은 지역사회의 주역인 청년들과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군은 청년아카데미가 지역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

야의 이슈와 관심사항에 대해 소통과 상생으로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밑거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이 정착하는, 청년이 행복한 기회의 땅, 진도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에게 동기부여와 활력이 되는 유익한 특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군, 근로사업 참여자 집중 모집

영암군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연말까지 집중 모집 중이다.

영암군은 하반기 정부추경 지원 예산을 증액해 총 13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모집대상은 18세이상 64세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모집분야는 총

10개 분야로, 읍면에서 참여하는 근로유지형(환경정비), 복지도우미(사회복지업무보조), 영암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배송, 청소, 식품, 쌀과자, 수제과자, 영농사업, 복지시설 지원, 인턴도우미 등의 사업이 있으며, 참여 신청자는 조사 및 상담을 거쳐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급여는 사업유형에 따라 월평균 60여만원에서 120여만원까지이며, 사업단에 따라 내일키움 장려금,

자립성과금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활센터 내에서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가능하며, 가구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후, 개인의 근로능력 정도, 자활의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다.

기타 참여상담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470-2133), 영암지역자활센터(☎471-9933)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재호 기자

씨월드고속훼리(주)이혁영 회장, 이웃사랑 성금 3천만원 기탁



씨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이 지난 18일 이웃사랑 성금 3천만원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더욱 더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도 “평소 목포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아 정말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매년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 해주신 이혁영 회장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마음들이 모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목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2008년 6월부터 목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혁영 회장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총 4억 4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헌신과 봉사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